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 하나님의 백성

(아모스 2장 4 - 16절)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으로 둘러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후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1. 율법을 무시한 죄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4절).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실 때 반드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백성들은 율법 없이 망하거나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았습니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원죄인 교만입니다. 교만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기도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찾는 기도를 합니다.

### 2. 우상에 미혹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무시하더니 마침내는 조상들이 하던 것과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는 이방 나라인 다메섹이나 두로 백성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율법을 돌 판에 새겨주셨지만 율법 이전에 양심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부패하고 마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자들은 율법으로 판단하시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곧 우상의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 3. 도덕성의 부패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6절).

인간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한 도덕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이방 사람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 (1) 경제적 범죄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6절).

은을 얻기 위해 의인을 판다는 것은 배반하는 것을 말하며, 남을 이용하고 속이는 자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서 범한 죄,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인권을 무시한 죄, 잔인한 행위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아궁에 사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악랄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봇의 조그만 포도밭까지 빼앗은 것은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2) 불의한 재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7절).

이스라엘의 또 한 가지 죄는 박해받는 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말하는 것이며 재판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미 뿌리가 흔들린 나라입니다.

우리는 작은 법이라도 소홀히 알면 안 됩니다. 작은 법을 어길 때 큰 법까지도 쉽게 어기게 됩니다. 은을 얻기 위해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법 정신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권을 무시한 죄를 범했습니다.

#### (3) 부도덕한 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7절).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수종드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하러 왔다가 한 창기에게 가서 잠을 자는 부도덕한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8절).

하나님은 해지기 전에 이웃의 전당물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출 22:26-27). 그런데 이들은 돌려주지 않고 그 옷 위에 누워 잠을 자고 또한 부당한 벌금으로 열락을 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13절).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족을 멸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날에는 별거벗고 도망하리라”(16절).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에서 범한 죄,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하고, 인권을 무시한 죄, 잔인한 행위 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죄를 범하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씻을 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부터  
주중에 본당  
사용 금한다**

† † †

**-파이프 올겐 설치로-**

기다리던 파이프 올겐이 독일 함부르크 중 본당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구에서 오는 14일 선적이 되어 출발, 4월 중순경 부산항에 도착, 22일경 교회에 도착 할 예정이다. 4,000 개가 넘는 파이프와 수 만개의 부품, 조립을 위한 기초 공사부터 8 월말 완성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주 도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

**고등부 다니엘 선서식**

우리교회 고등부에서는 이번 주일에 다니엘 선서 식을 갖는다. 뜻을 정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했던 다니엘과 같이 새로이 시작되는 학교생활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학생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선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서울교회 고등부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과 같이 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그리 아나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단 3:18)
2.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 4:8)
3.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단 1:8)
4. 시간을 정하여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겠습니다. (단 6:10)
5.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단 6:10)
6.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단 1:17)
7. 겸손한 자세로 다른 친구들을 섬기겠습니다. (단 4:37)
8.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겠습니다. (단 12:3)
9.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단 1:9)
10.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단 9장)

**매주 수요일  
가정 상담실 열린다**

주일에 열리고 있는 가정 상담실이 지난 주 수요일부터 개설되었다.

상담자는 상담학을 전공한 주원순 사모(서명철 목사 부인)와 이현숙 집사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403호). E-mail 로도 상담할 수 있다

(sara1953@hanmail.net), 예약전화: 019-376-3892

상담영역:

**1.개인 생활**

- 자아 개념 영역 (낮은 자존감, 의사 결정, 자아상)
- 감정 영역 (불안, 분노, 우울, 염려, 외로움, 두려움, 좌절 감 등)
- 신체 영역 (피로감, 두통, 체중의 증가 및 감소)

**2.학교생활 (성적, 친구 관계, 진로)**

**3.사회생활 (직장 생활, 이성 교제)**

**4.가정생활 (부부 갈등, 자녀 양육)**

**5.신앙생활**

**한마음 축제 열린다.**

**-5월 8일 전교인 체육대회로-**

우리교회는 제 5회 한마음 축제를 5월 8일(목) 공휴일을 기해 삼성병원 앞에 위치한 밀알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거행기로 했다.

준비위원장(이완형 장로)를 비롯한 조직위원회는 한마음 축제가 나누어진 국민 통합과 한교회의 일체감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면서 5월 8일 한마음 축제에 온 교인들이 교구별로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청교도 신앙세미나  
이번 주간에 시작**

**기간중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

**-제11차 KIMCHI 세미나-**

제11차 KIMCHI 세미나로 청교도 신앙세미나가 이번 주간에 모이게 된다.

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를 비롯한 위원들은 그 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고 대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수)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회자 71명과 한국에서 사시는 목회자들이 당일 밤 8시 제1강의를 시작으로 15일(토) 오후까지 계속한다. 특별히 이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5시 30분에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제1기 찬양대원 양성반 모집**

교회에서는 제1기 찬양대원 양성반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30일(주) 오후1시 30분 102호 (미스바홀)에서 있으며 찬양대원 양성반을 수료하여야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강의 내용과 일정, 강사는 다음과 같다.

일자	교과목	강사
3.30	찬양과 예배	윤영국 목사
4.6	호흡과 발성 찬양대의 역사	박정선 집사
4.13	호흡과 발성 음표와 침표	박정선 집사
4.20	호흡과 발성 박자와 리듬	박정선 집사
4.27	호흡과 발성 조표와 이동도법	박정선 집사
5.4	호흡과 발성 음정연습 및 와음합창	박정선 집사
5.11	호흡과 발성 계명창법 및 와음합창	박정선 집사
5.18	호흡과 발성 악상기호와 빠르기 말	박정선 집사
5.25	호흡과 발성 성악곡 형식과 연주형태	박정선 집사
6.1	호흡과 발성 교회력과 경건의 찬양	박정선 집사

**캄보디아  
단기선교사 모임**

캄보디아에서 Brow 종족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정룡 선교사를 모시고, 서울교회 제3기 캄보디아 단기선교사들의 모임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 일시: 3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701호
- 대상: 캄보디아 단기선교사 지원자 및 관심있는 성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빠도 불안한 일이 있거나, 잘 안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저도 밤에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는데요, 아침에도 저녁때 한 기도대로 저 스스로 일어나게 되요). 예수님은 항상 아빠를 지켜보고 계시실 거예요.

아빠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아빠가 말한 대로 기도대장 다니엘, 담대한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친구들에게 심을 게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빠를 사랑하시고 아빠가 항상 우리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아빠를 돌보실 거예요. 아빠저는 항상 저녁에 기도할 때 아빠 병원 일이나, 가브리엘 찬양대가 모두모두 잘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화이팅!!

여외회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잠1:7)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혜영에게**

김은석 집사(3교구)

엄마와의 사랑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 것이 었그제 같은데, 우리 혜영이가 벌써 어엿한 초등학교의 새나기가 되었구나.

우리 가족이 대전에서 올라와 어떤 교회를 섬겨야 할까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서울교회로 인도하셨던 일과 엄마와 아빠가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까지 챙겨주는 너를 보면 우리 혜영이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끼게 해준단다.

유년부와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겠지.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는 설레임도 있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겠구나. 하지만 문제없다. 너의 뒤에는 든든한 친구며 후원자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고평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한다면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교회생활과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혜영아! 하나님이 얼마나 혜영이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유년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기도대장 다니엘, 담대한 에스더 같은 예수님의 꿈쟁이가 되기를 바란다. 혜영아 화이팅!!

**사랑하는 아빠께**

김혜영(유년부)



아빠가 쓴 편지를 읽어 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서울교회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 예수님이 엄마와 아빠에게 생각을 잘하게 인도

#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족

지난 3월 2일 이종윤 목사의 주일설교 예화 중 제헌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을 국회 자료실에서 수집하여 실는다.

(자료수집-노창훈: 청년부)



▶국회의사당에 보관 중인 기도문

臨時議長 李承晩 : 大韓民國 獨立民主國 第一次會議을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感謝해야 할 것입니다. 宗教 思想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誠心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感謝를 드릴터인데 李允榮議員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祈禱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允榮 議員 祈禱 (一同起立) : 이 宇宙와 萬物을 創造하시고 人間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民族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祝福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誠心으로 感謝하나이다. 오랜 時日동안 이 民族의 苦痛과 呼訴를 들으시사 正義의 길을 日帝의 暴力를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世界萬邦의 良心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民族의 念願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歷史의 歡喜의 날을 이 時間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世界萬邦에 明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南北이 둘로 갈리어진 이 民族의 어려운 苦痛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民族 우리 同胞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速히 오기를 祈禱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願치 아니한 民生의 塗炭은 길면 길 수록 이 땅에 惡魔의 權勢가 擴大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榮光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願컨대 우리 朝鮮獨立과 함께 南北統一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民生의 福樂과 이울리 世界平和를 許諾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依支하여 저희들은 聖스럽게 擇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民族의 代表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責任이 重大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自身이 眞實로 無力한 것을 생각할 때 智와 仁과 勇과 모든 德의 根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要素를 저희들이 懇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國會가 成立이 되어서 우리 民族의 念願이 되는 모든 世界萬邦이 注視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問題가 圓滿히 解決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完全自主獨立이 이땅에 오며 子孫萬代에 빛나고 푸르른 歷史를 저희들이 定하는 이 事業을 完遂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會議을 司會하시는 議長으로부터 모든 우리 議員一同에게 健康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良心의 正義와 威信을 가지고 이 業務를 完遂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歷史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歡喜와 우리의 感激에 넘치는 이 民族의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榮光과 感謝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祈禱하나이다. 아멘

1948년5월31日 制憲國會 第1次本會議

## 육사 59기 졸업파송 예배를 마치고

최임수 집사(비전 2020 회원)

할렐루야!

먼저 우리교회 후원으로 육사 졸업파송 예배를 육사본당에서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착한 육사교회에는 넘실하고 패기에 가득 찬 124명의 졸업생들과 생도 그리고 성도들로 꽉 차고 넘쳤다.

이종윤 목사님의 “아브라함의 증보기도”란 제목의 설교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하들과 국가들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으며 개인이 한 나라를 구할 수 없기에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나만이라도 정도를 걸어가라는 메시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젊은 사관생도들이 전후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중인 비전 2020 운동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믿어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젊어질 젊은 장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비전을 주옵소서.



## 2003년 담임목사 노인 환자심방 동행취재

지난 연초부터 2월28일까지 우리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는 그동안 병환으로 교회에 장기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심방하여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며 위로의 시간을 갖았다. 순례자는 마지막 심방일인 2월28일 담임목사 심방에 동행취재를 하였다. (편집부 주)



### -조봉환 권사택-

조봉환 권사는 올해 80세로 87세 되시는 남편 박래원 집사와 단란하게 살고 계셨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아서 혼자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하시고 더욱이 다리를 수술하시고 너무나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난 1년간 교회에 출석치 못하셨다. 이종윤 목사는 먼저 찬송가 93장(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4절을 반복하여 함께 부르고 나

후 디도서 2:1로부터의 말씀을 읽고 늙음은 정한 순서이나 노인의 삶에서 늙은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사랑 인내 함에 온전하고 늙은 여자는 행실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신실하여 젊은이를 교훈하시기를 권면하시고 이제껏 믿음 삶을 살아오셨으니 앞으로도 더욱 선한 일에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구 하셨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말을 예화로 들려 들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천국 가기 소원하는 가정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의 걸음 걷도록 당부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함을 감사하며 건강 주셔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실 수 있고 아론 수명의 기쁨처럼 자녀의 기도가 흘러내리도록 간구하시는 기도로 마치셨다.

### -최완 권사택-

최완 권사는 올해 78세로 당뇨와 망막출혈로 시력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장기간 거동을 못하시고 실내에만 계시던 중이었다. 마침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기 2일 전에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셔서 이번 심방은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 가족 모두가 감사함으로 심방예배에 참석하였다.

담임목사는 찬송가 493장(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

은 몸)을 4절 반복하여 부르고 고린도 후서 4:14로부터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16절 낙심치 안 느다는 말씀을 들어갈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아침과 저녁에 새 노래를,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부르시고 지금 환난은 경한 것이며 마지막에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낙심치 마시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주를 믿어 믿음의 유산을 보이시도록 끝까지 감사하십시오. 라고 당부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낙심치 마시고 영광돌리도록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수술 후 쾌유하여 육신의 질병에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어 복음의 증인 되시고 교회의 귀한 기도자가 되셔서 응답받고 자손이 신앙 안에서 성장토록 속사람이 날로 기뻐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구하심으로 심방을 마치셨다.



-고등부 다니엘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박예옥 성도(손영호 학생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의 아들. 나의 기쁨,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주고 싶었고, 교회에는 나오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고 믿었으며, 세상에서 내가 그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기도 할 수 있는 교회와 힘과 믿음주시기만 간구하고 있는 데 고등부 다니엘 새벽기도회가 열리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엄마로, 그동안 중등부와 고등부의 여러 수련회도 강권하지 못한 잘못을 이번에만은 행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함께 기도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은 매우 힘들어하였지만 점차 변화하고, 말씀과 의미를 깨달아 가는 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형호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먼저 말씀 보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낮은 자세로 친구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하여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되는 기쁨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열심과 정성으로, 또 진정과 자애로 고등부 가족들을 위하여 목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 목사님과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선생님들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같이한 고1 친구들과, 고2, 고3 선배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수련회를 기다립니다.

**고은지 학생(고 3)**

봄방학이 시작하기 며칠 전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문득 한 교회의 새벽 기도회 시간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늘 무심코 지나치던 교회에서 눈여겨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시작하면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밤 오정식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개학 일주일 전부터 고등부에서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하니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

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기도회 시간이 눈에 띄어 가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목사님께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전화까지 받으니 이젠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새벽기도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일어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학교에 가려면 6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하물며 방학에 학기 중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주에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꼭 지켜야 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나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으로 가는 새벽 기도회라 은근히 설레기도 하고 학생이 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아닌 걱정도 들었습니다. 딱 교회당에 들어섰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아 내심 놀란 한편 이 이른 시간에 교회에 나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고등부 학생들끼리 모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양과 오정식 목사님의 간단한 말씀 그리고 여러 주제에 대한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 많은 수가 복을 달라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솔직히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 역시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좋은 대학가게 해달라거나 이번 시험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선 얼마나 기도했다, 주변에 안 믿는 이웃을 위해 기도한 적은 있는가를 생각하니 새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고3이니까 공부해야 한다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공부하고 대학가면 믿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하루 1시간 정도를 교회에서 보냈지만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교회를 안 갔다면 했을 그 1시간의 공부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간 그저 습관처럼 믿던 저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주일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개학해서 학교생활에 임할 때에 이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 발족**

겨울 성경학교가 끝난 지난 2월 25일(화)에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하며 200여명의 유초등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창단예배를 드렸다.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은 지난 해 7월 효과적인 전도활동에 관련한 토의에서 축구 전도단을 만들기로 하고 같은 해 8월 은마 아파트내 십자공원에서 축구 시합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축구를 통한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종윤 목사님은 창단예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어린이가 되라'고 하시면서 유소년 축구를 통해 대치 지역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과 이 귀한 일에 한 사람도 방관하지 말고 동참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창단식에서는 그간의 경과 보고와 단기수여가 있었으며 4명의 어린이(이유빈, 최승우, 박마리아, 김이준)가 전도 체육부장으로 뽑혀 대표선서를 했다.

이종윤 목사님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의 이사장으로 신윤식 집사를 단장으로 임명하였다.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의 왕성한 전도활동을 기대한다.

허 숙(편집부)



**-농어촌 100교회 후원현황-**

- 105 은혜교회 강영숙 3-9다락방
- 106 열린교회 장경호 박정선·김남순
- 107 아산교회 추교화 배병이
- 108 봉기교회 김학경 12-2다락방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지난해에 우리교회에서 열렸던 ALCOE V의 자료집(영문판)을 책으로 엮어 출판했다.
- 파이프 올겐 회사 Horst Sandner 부사장이 13일(목) 우리교회를 방문하고 올겐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한다.
- 개업 이전: 이계명·김금매 성도(1교구)-컴퓨터 세탁 강남구 대치동 926번지
- 기증: 김복녀 권사(4교구) 박춘배 집사(갈릴리 갈리교회) - 이·미용선교회용 기구
- 금주의 식사: 성준경 장로 장남의 권사 가정

**안녕하세요?**

양손을 살짝 주먹을 쥐고 동시에 아래로 내린다.

(자료: 임규현 에바다부 담당 목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청교도 신앙 세미나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